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운원신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 6:27-38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원수를 사랑하라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6월 9일	6월 16일
장헬렌	서경열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청소년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친교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가을에다시)
아침묵상	(화,수,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생각하는 영성은 깊다

본문 : 마6:25-30

신앙생활은 깊이 생각하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동보다 생각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먼저 바꾸어 놓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심판을 허락하실때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것입니다. 아니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잘못입니까? 그것은 결혼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신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루 하루 내 앞에 놓여진 문제들만 바라보며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데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삶에서 아무런 열매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며, 나 중심이며, 문제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라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그건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실까요? 우리를 질책하고 책망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 속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향한 긍휼의 시선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말 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 너희는 나를 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세 번 물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면 내 사랑을 확인했다면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라. 조건에 지배당하지 마라. 돈에 지배 당하지 마라. 사람에게 지배당하지 마라 다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내일이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바라본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충만해 집니다. 그 마음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시야가 넓어집니다. 한 날에 붙들리지 않고 영원한 날을 바라봅니다. 생각하는 영성은 깊어지면 갑니다.